

# 탄소소재, 우주·항공·방산 이끈다

### 여야 의원들, 21일 정책포럼 열고 국가핵심산업 공급망 확보 전략 모색

국회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구자근(이상 국민의힘), 김성주 안호영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탄소소재가 이끈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신영대 의원(민주당)과 탄소소재법을 제정할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을 마련한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개정안 공동발의자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로 마련해 국

가 핵심 산업에서의 공급망 확보 전략을 모색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우주·항공, 미래형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초 소재인 탄소소재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탄소산업의 핵심거점지역인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행사의 발표 주제는 '우주·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하는 탄소산업 발전방향'으로, 산업연구원 정은미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윤근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우석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이길호 상무(대한항공), 전해상 대표(도레이 스페이스), 조문수 대표(한국기부), 김철 전무(효성첨단소재)가 참여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2021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국가적으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출범 등을 통해 방산·우주,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등 주요산업별 워킹그룹을 운

영해 왔다.

이번 토론행사에서는 민간주도형 우주산업 개발 등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정책 기조에 맞춰, 국한된 우주환경에서 요구되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을 구현하고 UAM 등 미래 첨단 산업에까지 쓰이게 될 탄소소재·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회의원 연구단체(가칭) 탄소산업 정책포럼을 구성해 정기적인 탄소산업 세미나 개최 및 입법정책 개발활동을 도모하고 산업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정책포럼은 탄소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지난 1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나 같이 산다. Back to the 소캠'을 주제로 '소셜캠퍼스 On-time'을 진행했다.

## '나 같이 산다. Back to the 소캠'

### 경진원, 소셜캠퍼스온 전북 5주년 기념 총 동창회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지난 1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나 같이 산다. Back to the 소캠'을 주제로 '소셜캠퍼스 On-time'을 진행했다.

소셜캠퍼스온 전북 개소 5주년을 맞이해 준비된 행사로 개소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입주기업 임직원과 역대 총괄책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

최근 2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행사 축소로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가 적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온라인의 소통과 협업의 장'으로 준비됐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인 '소리지 존퓨전타악퍼포먼스'와 '글로벌한'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사회적경제 기업 업무 협약식', '뉴스포츠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이 빛난 행사였

다. (주)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기관인 (사)전북사회적경제재단대회의가 힘을 모았다.

소셜캠퍼스온 전북은 복권기금으로 조성,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조성해 경진원이 2017년 7월 개소부터 6년 연속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20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인큐베이팅하며,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척 지원, 담임 멘토링 등 다수의 프로그램으로 소셜캠퍼스 온 전북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현용 원장은 "마스크에 일부 가려졌지만 참석자들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이 뿌리 내리는 '미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중기 장기재직 무주택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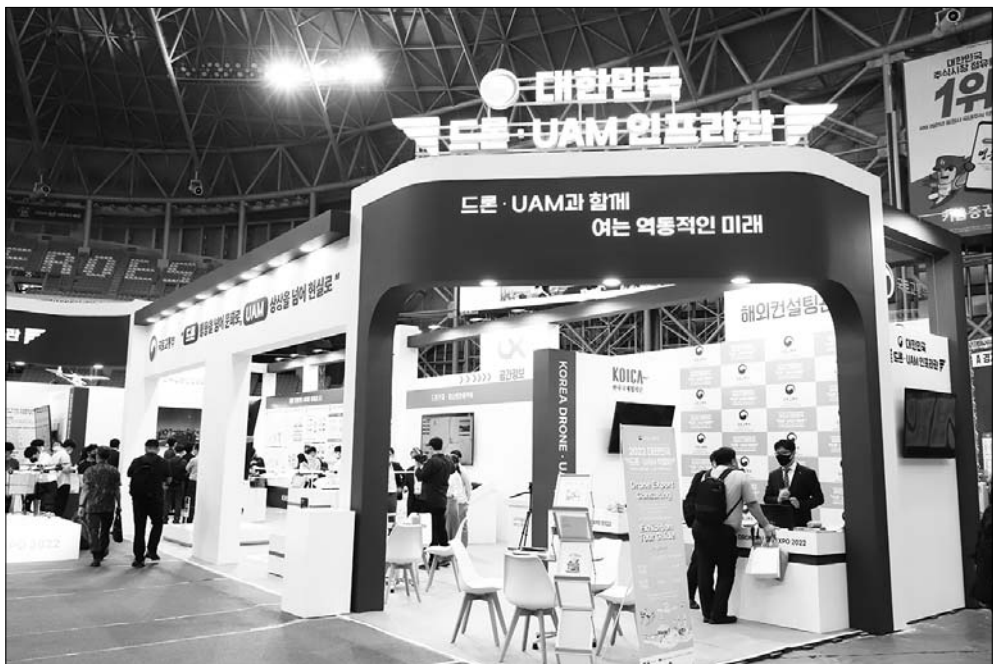
### 군산 경남아너스빌 디오션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군산 경남아너스빌 디오션' 아파트는 경남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진 세대수는 총 33세대(확정추천 24세대, 예비추천 9세대)다.

신청지역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야 한다) 또한 입주자추천(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지역 거주자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시스템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v.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드론 산업 대중화에 기여하고 UAM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 드론·UAM 박람회가 지난 15~16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키아움에서 개최됐다.

## 드론 대중화... UAM의 현실화...

### 국토부·LX공사, 드론·UAM 박람회 열어

드론 산업 대중화에 기여하고 UAM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 드론·UAM 박람회'가 지난 15~16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키아움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드론과 UAM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시회·포럼·레져대회로 마련됐다.

박람회는 드론과 북청사자놀음을 접목한 드론테이먼트(드론+엔터테인먼트)로 문을 열었다. '드론·UAM과 함께 열어가는 역동적인 미래'를 주제로 10대의 드론이 페그리미를 치는 상모꾼과 어우러져 신명나는 한바탕을 펼쳤다.

특히 2025년 UAM 상용화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UAM Team Korea 전략포럼이 마련돼 관심이 집중됐다. 포럼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UAM 초기 상용화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하고 팀 코리아 주관기관인 LX공사 등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UAM 상용화 촉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UAM법 제정 상용화 실증사업 추진,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 핵심기술연구개발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드론 대중화를 위한 FTA 코리아 드론 레이스 국제 월드컵(2022 KOREA DRONE RACE WORLD CUP), '국토부장관배 드론축구 챔피언십' 등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대회도 함께 열렸다.

전시관에서는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드론을 볼 수 있는 테마별 전시관이 운영됐으며, 드론·UAM 신기술 동향 등 드론 개발 관련 주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는 드론·UAM 인프라관에서 드론·UAM을 활용한 핵심사업도 소개했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공사는 안전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하늘길 지도를 구축사업부터 민간 드론 배송시장을 지원하는 드론배달점 사업, 디지털트윈,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다양한 공간정보사업을 홍보했다.

LX공사 김경철 사장은 "국민 여러분이 드론과 UAM의 역동적인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드론·UAM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LX공간정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은 장학문화재단

### 'JB인문학 강좌' 열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유임으로 운영하는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우)은 지난 13일 김제 덕암고등학교와 익산 원광여자고등학교에서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 날 강연은 리더십 대표이자 다양한 분야를 통해 달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러너 전도사 인정은 강사가 포기하지 않고 인생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안 대표는 직장에서 적용 실패, 승무원 재취업 실패 등 힘들었던 시기를 달리기 통해 극복했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라톤 플러스와 철인 3종 경기 완주 등 전 세계를 누비며 달렸던 에피소드와, 37시간의 마라톤, 250km 몽골 울트라 마라톤 완주를 통해 한계를 극복했던 순간들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좌에 참석한 한 학생은 "강의 중에 지금 이순간도 하루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기다보면 언젠가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저수지 농업용수 부족 해결방안 공유

### 농어촌공 전주주임실시사, 운영대의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원중)는 지난 15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신규 운영대의원 16명과 함께 2022년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년간 지사 농업기반시설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문역할을 맡게될 운영대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사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통합물관리 추진 관련 공사역할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및 건의사항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저수지의 농업용수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농업용수 절약 실천과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수초제거와 퇴적토 준설



을 통한 용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원중 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통합물관리 시대에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하고, 운영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 정읍 농어촌공 농지은행사업 '큰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는)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맞아 농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농지은행사업을 왕성히 펼치고 있어 지역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지역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평당 3919,669원(청년농 및 생애첫취득시 521977원)을 연 1% 최장 3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금년 30억원의 예산 중 60%인 18억원이 집행된 상태로 금리가 매우 낮아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많은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어 파악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상기 농업인의 참여율이 높은 사업이다. 부채가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면서 자부담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7년간은 임대료로 농지를 잃을 염려 없이 경작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의 장점이다.

올해 59억원의 예산 중 90%인 53억원이 집행된 상태이지만 정읍지사는 지원자가 많을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예산이 소진되기 전 정읍지역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농지은행관리부(063-530-0311~03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